

‘독서의 해’에 시작하는 범국민적 독서정책 추진 방향

글 | 황 두 연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장
hdooy@mcst.go.kr



‘독서의 해’ 추진 배경

디지털 문명은 출현한지 불과 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늘날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의 삶의 방식을 크게 바꿔놓고 놓고 있다.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도 전통적인 개념의 ‘종이책’에서 ‘전자책’ 등 ‘디지털 매체’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창의와 감성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시대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은 ‘책’과 ‘독서’이다. 이런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독서의 해’로 지정하여 다양한 독서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호주는 올해를 독서의 해로 지정하여 활발한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을 ‘독서의 해’로 지정하기 위하여, ‘독서의 해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출판·독서·도서관·학계 전문가의 자문과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서관, 독서, 출판, 시민단체 등의 인사가 참여하는 ‘독서의 해 추진위원회’(위원장 문용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6대 과제 22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2012 독서의 해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독서의 해’ 주요 추진 사업¹⁾

문화체육관광부와 독서의 해 추진위원회에서는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라는 모토 아래 2012년에 ‘하루 20분씩 1년에 12권 읽기’, 책으로 선물하기 운동 ‘책 드림’, 지역 도서관 가기, 동네 서점 찾기 등 다양한 독서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주요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독서운동을 도서관, 출판계, 독서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추진한다. 지난 3월 9일 문화역

1) ‘독서의 해’ 주요 추진 사업은 본지 3월호 특집 “2012 독서의 해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서 소개한 바 있다.

서울 284(舊 서울역사)에서 개최한 독서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책 드림’ 행사, ‘책 다모아’ 행사 전개하고 있으며, 주 5일 수업제와 연계한 도서관가기, ‘책책폭 폭 책 드림 콘서트’ 등 다양한 독서운동을 관련단체 등과 연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독서활동을 집중 지원한다. 장애인과 영·유아, 다문화가정 등의 독서운동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중독자 등을 치유할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하여 개발·운영하고 있다.

셋째, 생활 속의 국민독서 분위기 확산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한 지역단위 독서관련 기관·단체간 독서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독서동아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묶어주고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대표 독서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방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연대하여 다양한 독서운동을 전개한다. 먼저 병영에서의 독서활성화를 위하여 50개 시범부대를 선정하여 병영 독서를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공동으로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을 지원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는 초·중·고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침독서운동 참여 확산을 위해 ‘아침 10분 독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섯째, 다양한 독서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EBS와 공동으로 ‘하루 20분씩 1년에 12권 읽기’ 캠페인과 ‘지금은 책 읽는 시간’ 시보방송을 전개한다. 또한 다음 등 포털과 협력하여 동영상 및 정책을 홍보하고, 도서관, 독서, 출판관련 전문매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홍보를 극대화하고 있다. 아울러 ‘독서의 해 SNS 민간포럼’ 등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독서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마치며

2012 독서의 해 추진을 통해 국민 총 독서량(GNR, Gross National Reading) 및 독서인구가 약 5% 증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4,200여억 원 출판시장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독서활성화를 통한 독서인구가 증대되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면, 출판사는 우수한 출판기획 환경으로 이어져 건전한 출판 생태계가 조성되고, 출판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독서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